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준비 안 된 불교영어교육

정확히 1년 전이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서 내놓은 '영어 몰입 교육' 정책으로 전국의 학부모와 교사들의 비탄과 우려의 목소리가 전국을 달랐다. '어린지(orange)'라는 유행어를 남기고 잠잠해졌지만 세계화 시대에 문화의 소통을 위해서 영어교육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1월 28일 조계종 포교원과 불교TV가 공동 제작한 '헬로우 달마 스쿨(Hello Dharma School)'이 불교TV를 통해 첫 방송됐다. '헬로우 달마 스쿨'은 어린이 대상의 불교 포교와 함께 할 수 있는 영어교육이 절실하다는 현장의 요청과 해외에서 어린이가 법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찰의 필요에 의해 제작됐다.

'헬로우 달마 스쿨'은 일선 사찰 어린이법회에서 1년간 영어교실을 열 수 있도록 구성됐다.

포교원은 방송 후 영어교실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찰에는 어린이 법회의 활성화를 위해 워크 샷을 개최해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포교원 관계자는 지도자 총원부에서 "교사는 확보됐다. 내용이 쉬워 일반 대학생들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며 자신만만했다.

한국어로 말해도 어렵다는 불교다. 게다가 불교 용어는 다

의성과 함축성으로 불교 학자들의 경우도 오역과 그릇된 해석이 빈번하다. 물론 기본적으로 쉽게 풀이됐고 또 영어불교용어는 한자불교용어에 비해 훨씬 쉽다지만 이것은 용어의 문제가 아니다. 결국 쉬운 내용 속에도 불교교리를 오롯이 살려 알리기는 쉽지 않다는게 핵심이다.

특히 어린이 법회를 이끌어갈 지도자 부족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기본적인 법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도 없는 가운데 어린이 영어 법회를 이끌어갈 지도교사로 대학생 1~2학년 수준의 회화 능자 아르바이트를 투입하면 된다는 허술한 발상이 문제다.

아무리 영어몰입 교육이 유행이라지만 교리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지도자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영어프로그램을 보급하려는 것은 성급한 시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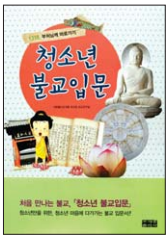
해외 포교를 위해서도 만들어진 이번 방송과 교재가 외국 어린이들의 수준에 적합한가도 의문이다. 한국어를 쓰는 어린이를 위한 불교영어교재와 프로그램이 영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는 해외 어린이에게 적용된다면 이 교재의 사용 범위는 얼마나 될까? 안이하게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불교영어교육을 위한 한국불교 용어통일과 지도자 양성부터 서두르는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길이 아닐까.

조계종 포교원, '청소년 불교입문' 발간

1318세대를 위한 불교입문서가 나왔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실장 동성)은 지난해 <청소년 설법자료집>을 펴낸데 이어 한국불교의 새 씩자 희망인 청소년 불자를 위해 <청소년 불교입문>을 발간했다. 불교지도자들에게는 지침서로, 청소년들에게는 불교 길라잡이로 반듯한 불교 안내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청소년 불교입문>은 불교 전반

을 폭넓게 아우르면서 현재 중·고등학생인 13~18세에 이르는 세대들이 불교를 교리, 가치, 생애, 불교 문화, 수행이라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한 불교종합선물세트로 손색이 없다. 가연숙 기자



전통사찰음식 세계화로!

문광부 5억원 지원, 5년간 일제조사 실시

웰빙 열풍과 함께 바른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때, 조계종이 전통사찰음식의 표준화를 나서 눈길을 끈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수경)는 최근 전통사찰음식의 원형을 파악하기 위해 5년간 일제조사를 거쳐 전국의 전통사찰음식과 문화 원형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제조사는 전국을 서울·경기, 부산·경남, 광주·전라 등 5개 광역으로 나눠 1년 단위로 실시된다. 인터뷰와 조리과정 등을 과학적 채증과 함께 각 지역별 전통사찰음식의 역사성, 영양성과 건강 및 수행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게 된다.

문화부 관계자는 "1월 12일 문광부로부터 5억원을 배정받았다. 5년간 전국 일제조사를 통해 구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통사찰음식의 세계화를 위한 브랜드 작업에도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제조사는 전국을 서울·경기, 부산·경남, 광주·전라 등 5개 광역으로 나눠 1년 단위로 실시된다. 인터뷰와 조리과정 등을 과학적 채증과 함께 각 지역별 전통사찰음식의 역사성, 영양성과 건강 및 수행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게 된다.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M&B는 일제조사 기간 중 사찰음식 페스티벌과 사찰음식 관련 서적을 발간하고, 외국인 대상의 사찰음식 관련 관광코스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 관계자는 "전통사찰음식은 한국불교 문화를 대표하는 콘텐츠임에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며 "이번 표준화 사업을 통해 전통사찰음식 원형을 보존하는 물론 세계화에 나설 예정"이라 말했다.

조동성 기자 cetana@buddhapia.com

영배 스님 유죄 확정

동국대 어떻게?

울주군 흥덕사에 국고를 요청한 혐의의 기소된 동국대 이사장 영배 스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월 30일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영배 스님에게 원심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스님은 당시 청와대 변양근 정책실장에게 사찰 사업인 흥덕사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영배 스님의 유죄 확정에 따라 동국대 후임 이사 선출을 두고 종단이 한차례 내홍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립학교법 제22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종단에서는 후임 이사 자리를 두고 제과간 갈등은 불 보듯 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차기 총무원장 선거와 맞물려 의외로 쉽게 봉합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대법원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변양근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신정아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조동성 기자

문화재관리 안전 지적사항 전달

1년에 이어서

문화재청은 1월 19~23일 흥인지문(보물 제1호) 등 중요 목조문화재 151건(점검대상 중 경복궁 근정전 등 20건은 1월 6~9일 점검)을 합동 안전점검하고 문화재관리지 자체와 소유(관리)자에게 총 182건의 지적사항을 전달했다. 김진성 기자

#합동안전점검 중 국보 문화재 점검 결과

문화재명	문화재명	문화재명	문화재명
국보 제55호	보은 범주사 팔상전	소방	비상경보설비 단선·보수 조치 필요 수신반 설치 장소 이설 필요
국보 제40호	예산 수덕사 대웅전	가스	도색 및 일부 부속으로 교체
국보 제67호	구례 화엄사 각황전	가스	가스배관 도색 필요, 가스누설경보기 비박부로 이설
국보 제56호	순천 송광사 국사전	전기	주방내 가스누설 경보기 비치 경외지역 잠복 등 제거 검토
국보 제13호	강진 무위사 극락전	전기	각형전 문전반 전선피복 손상 우려(배관형 교체) 대웅전 기둥 외등인입구 합선 우려(배관형 교체)
국보 제15호	안동 봉정사 극락전	전기	하사당 내부전선 배관형 교체 하사당 주방 구역전선으로 교체
국보 제18호 제19호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가스	대웅전 마루 전선 구멍 차단(취로부턴 전선보호)
국보 제52호	해인사 정경전	가스	가스용기 고정 및 가스누설 경보기 등 설치 필요
		소방	대웅전 주변 소각로 이설 필요, 소화기 점검부 부족
		소방	소화기 충압 필요, 수신기 경계구역 표시 필요
		가스	가스용기 고정장치 필요 및 경계표시 비치
		가스	가스배관과 전선과의 이격 필요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간과장가를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문의 : 02-2004-8279

■ 영상사업 분야 :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사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셀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공정한 업무 종교 화합 계기 마련"

대오 스님 (사)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이사장 취임



(사)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신임 이사장에 취임한 대오 스님(왼쪽에서 세 번째). 왼쪽부터 안홍철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사회봉사부), 김현승 신부(대한성공회 사회선교국), 양신경 사관(구세군 대한사회봉사 사회복지부).

"특정 교단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업무 처리하며 의견 수렴해 복지활동을 통한 종교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겠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 스님은 1월 30일 LG트윈타워 노들원에서 (사)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이하 한종사협) 신임이사장에 취임했다.

취임식에서 대오 스님은 "경제가 어려울 때 각 종교계가 불우이웃과 소외계층을 위해 적극적으로 복지사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종사협은 종교계의 사회복지참여를 위해 1998년 창립됐다. 불교를 비롯해 가톨릭, 개신교 등 종교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종교간의 장벽을 대종의 호소를 외면하거나 더 적극적으로 끌어안지 못한 점을 반성하며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협의회는 사회복지 관련 법, 제도 개선, 사회복지현안에 관한 정책제시와 대

안마련, 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교류, 정부와 민간단체, 종교계간의 연대사업 등의 목적으로 조직, 운영되고 있다.

현재 협의회에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천태종복지재단, 진각종복지재단, 원불교사회복지협의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사회복지위원회,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기독교대한간리회사회복지선도국 등 총 11개의 종교복지단체가 참여중이다.

한편 한종사협은 같은 날 국회의 원외관 회의실에서 공동모금회법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의 쟁점과 대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동우 교수(강남대 사회복지학과)가 '민간모금 현황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이태수 교수(꽃동네현대사회복지대 사회복지학과)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의 쟁점과 대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나는 기자

"월운 스님 해임, 교학승 의기 짝잡는 폭거"

2월 12일 조계사 극락전서 발기인대회 개최

동국대(총장 오영교)의 前 동국역경원장 월운 스님(봉선사 조실) 해임 진상 규명을 위한 위원회가 발족된다.

(가칭) '동국역경원장 일방해임진상규명위원회 발기인대회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2월 12일 오후 2시 조계사 극락전에서 '동국역경원장 일방해임진상규명위원회 발기인대회'를 개최한다.

준비위는 발기인대회 동참 호소문에서 "월운 스님은 역경보살로 칭송되며 50여 년을 인재양성과 역경

사업에 헌신한 교학의 상징적 존재"라며 "동국대 인사위원회가 종단과 역경원장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해임을 결정한 것은 종단과 종단 원로스님에 대한 큰 결례"라 지적했다.

이러 준비위는 "월운 스님의 일방적 해임은 종단 역경불사와 교학에 매진하는 교수·강사스님들의 의기를 짝잡는 폭거"라며 전국 강원 교직자스님 및 후학제자를 비롯한 사부대중의 참여와 동참을 호소했다.

조동성 기자

대한불교 무량종 승려(사미.사미니) 법사 득도희망자 모집공고

미타종지 근본 도량 대한불교 무량종 지리산 총본산 금강계단에서는 부처님의 해명을 계승하고 승가의 청정지계 가풍을 확립하고자 승려(사미, 사미니)법사, 득도 희망자 방부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 공고 하오니 뜻있는 분은 접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격 : 1. 불심이 견고하며 민.형사상 결격 사유가 없고 득도 자격을 가진자로서 승려나 법사 과정을 희망하고 정상적인 승적을 갖고져 하시는분. 2. 사설 사암(寺庵)을 가지고 있으면서 종단등록을 못하였거나 출가 수계를 받지 못하여, 정상적인 승려, 포교법사 자격을 얻어 출가하고자 하시는분.
- 모집인원 : 00명
- 접수기간 : 공고일부턴 2009년 3월 10일까지
- 면 접 : 2009년 3월 18일 오전 11시
- 면접장소 : 무량종 총본산 중무소 (경남 하동군 적량면 서리 550번지 칠보정사)
- 교육기간 : 1차 - 2009년 3월 18일(수) 부터 ~ 3월 24일(화) (7일간)
- 제출서류 : 이력서1통, 주민등록 1통, 여권사진 3장, 건강진단서(종합병원) (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준비물 : 법복, 장삼, 목탁, 요령, 필기도구, 세면도구
- 교육비 : 300,000원
- 접수문의 : (055)882-1599 (총무원) / (055)883-7771, 7790 (총본산)

불기 2553 (2009)년 2월 1일

대한불교 무량종 총무원장 보경